

##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Culture, History and Natural invironment of Cheju

신석하 / 제주산업정보대 건축과 교수  
by Shin Seok-Ha

제주도(濟州道)는 한반도와는 130Km 떨어져 있다. 기후적으로 볼 때 온난다습한 아열대 몬순형의 기후지역에 속하며, 주변해역을 흐르는 쓰시마난류 때문에 한서(寒霧)의 차가 그리 심하지 않은 해양성 기후를 보여준다. 특히 본도는 삼다(三多)의 하나인 풍다(風多)의 섬이라 하듯이, 여름철에는 태풍이 내습하며,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이 매우 세차다.

지형을 볼 때 한라산(漢拏山)을 주봉(主峰)으로 하여 동서사면(東西斜面)은 매우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남북방향에서는 급한 사면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형의 대체적인 모양은 신생대 제4기의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되어 오늘날 제주도 지형이 완성된 것이다.

지형이 이처럼 화산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주도 토양의 70%는 화산재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농업생산의 저해요인을 갖고 있다. 1520년(中宗 15)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 '삼읍(三邑)이 모두 한라산 기슭이라 평지는 반도 안되고 밭을 가는 이는 생선의 뱃속을 파냄과 같고, 평탄한 듯 하나 멀리 내다보이지 않으니 오목하고 솟아있는 때문이다.'로 지형을 표현하였다.

한편 화산재토는 보수성(保水性)이 아주 약하고 그와 동시에 제주도 지하층은 절리구조(節理構造)를 갖기 때문에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물이 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용수(湧水)분포가 선사시대부터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입지요건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지형 및 토양 여건 때문에 자연히

촌락은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 제주역사의 시작

제주도의 명칭은 옛날부터 주호(州湖)·섭라(涉羅)·탐모라(耽牟羅)·탁라(乇羅)·탐라(耽羅) 등으로 불리었으며, 제주(濟州)라는 명칭은 고려 고종(1214-1259)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삼별초 정벌 후 원(元:蒙古)의 직할지가 되면서 원에서는 시종 탐라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탐라를 고려와는 별개의 지역으로 구분짓기 위한 조치였다. 그 후 고려에서는 탐라가 반환된 1295년(충렬왕 21)부터 다시 제주라는 칭호를 사용하였고, 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의 가장 오랜 선사유적은 애월읍 어음리에 있는 빌레못 동굴 유적이다. 동굴의 유적에서는 황금을 비롯하여 붉은 사슴, 노루 등의 동물뼈 화석과 다량의 굽개, 돌칼, 훔날 등의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이 굴은 중기 구석기 시대에 원시인이 주거했던 혈거유적지로 보고 있어서 제주도 자체가 대륙과 연결되었다가 함몰하여 점차 섬이 형성되었다는 가설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경면 고산리에서 신석기 시대 초기의 유적, 유물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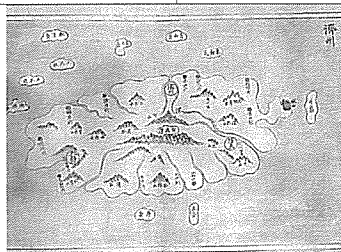
### 삼국시대의 제주

주호(州湖)시대는 삼국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삼국으로 서서히 통합되어 고대국가를 정립하여 나가는 시대이다. 이에 대응되는 시기로 중국 진나라 때 진수(233~297)가 쓴 <삼국지>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에 주호(제주도를 주호라 부름)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따서 주호시대라고 한 것이며 그 기록은 대략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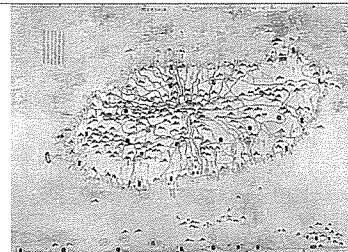
“마한의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섬이 있는데 주호라는 나라가 있다. 그 곳 사람들은 몸집이 작고 언어도 한나라 사람과는 다르다. 모두 머리를 깎아서 마치 선비족(고대 북아시아에 살던 몽고 통구스계에 딸리는 유목 민족) 같다. 옷은 가죽옷을 입었는데 윗도리만 입고 아랫도리는 없어 마치 벗은 모양과 같다. 소와 돼지도 잘 치고 배를 타고 한나라와 왕래하며 장사도 한다.” 이 기록은 제주도의 고대사회에 관한 비교적



해동지도 중 제주 삼현도(三縣圖), 1750년경



해동제국지도 중 제주, 1700년대말



제주 삼읍전도(三邑全圖), 1872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이다.

대체로 6세기 이후로부터 제주를 통칭하여 '탐라(耽羅)'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탐라와 삼국과의 관계는 탐라는 5-7세기에는 백제와 7세기 중엽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신라와 관계를 성립하였다. 본격적인 소국관계의 국가체제가 정비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938년(고려 태조 21) 이후는 고려에 예속되었으며, 그후로 1374년(공민왕 23)에 원나라 세력을 완전히 몰아낼때까지 고려와 원에 의해 수시로 소유권(?)이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는다.

### 고려시대의 제주

고려는 1105년(숙종 10) 탐라국의 국호를 폐지하고 고려의 한 지방 행정구역 단위인 군(郡)으로 편제시켜 탐라군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오랜 역사를 이어 온 탐라국은 해체되어 국호가 폐지되고 고려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고려의 간접통치를 받아오던 탐라는 고려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후 고려의 왕조가 원(元)의 침략을 받게 되자 이에 항거한 삼별초가 강화도와 진도를 거쳐 탐라에 내려오게 된다. 이때 이미 한통속이 된 고려 조정과 몽고는 삼별초가 탐라에 상륙하지 못하게 탐라섬 북녘 바닷가(현 애월읍 고내, 제주시 화북동, 구좌읍 행원 등)에 성을 쌓았다. 결국 진도의 삼별초군은 김통정이 이끄는 잔군을 이끌고 탐라에 들어와 항파두리성(현 애월읍 고성리)을 쌓고 대몽항쟁을 계속 전개하였으나 1273년(원종 14)에 여몽연합군에 패하여 삼별초 항쟁은 최후를 마쳤다. 삼별초를 평정한 원(元)은 탐라를 고려로부터 분리시켰다. 이것은 원세조가 열망하여 오던 일본과 중국의 남송(南宋)정벌에 전략상 탐라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탐라는 원이 멸망할 때까지 근 1세기 동안 이민족에게 시달리는 치욕적인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원의 지배는 제주인의 언어습속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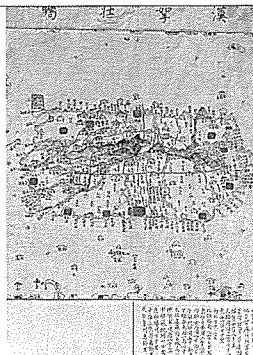
### 조선시대의 제주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때까지 신라 및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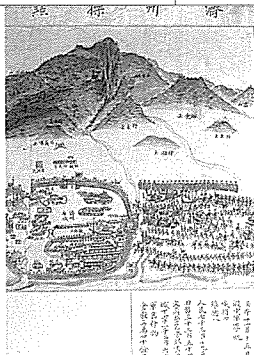
려에 예속되면서도 반독립적 형태에서 자주성이 유지되어 오던 탐라의 모든 제도와 행정권은 태조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의하여 그 행정력 속에 흡수되었으며 향교(鄕校)를 설립하여 유교(儒敎)의 지도이념 아래 유교교육이 보급된다. 1404년(태종 4)에는 오랫동안 세습되어 오던 성주(星主)·왕자(王子)의 호칭이 폐지되어, 이후 제주도의 귀족은 평민화되었다. 1409년(태종 9) 중앙에 경재소(京在所)가 설치되면서 서울에 사람이 가는 것이 허락되어 벼슬을 하는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1416년(태종 16)에는 한라산 분수령을 경계로 산북을 제주목(濟州牧)으로, 산남은 양분하여 동측을 정의현(旌義縣), 서측을 대정현(大靜縣)으로 나누어 각각 목사와 현감을 두어 다스렸는데, 이 1목2현 제도는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왜구의 침입은 고려 말부터 조선 중엽 1559년(명종 14)까지 30여회나 있었다. 따라서 1439년(세종 21) 왜적에 대한 방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3성(城-행정·방어목적의 성), 9진(鎭-방어를 위한 성), 25봉수대(烽臺-통신망), 38연대(煙臺-감시망)를 정비하였다. 특히 왜구의 침입이 가장 심했을 때는 1550년대로 1555년(명종 10)에는 왜구 1천여명이 침입하여 제주성(濟州城)을 공격하였으며, 1556년에도 왜구는 전도에 걸쳐 침입하였으므로 군관민을 두려하여 왜적을 물리쳤는데 제주에서는 이를 을묘왜변, 병진왜변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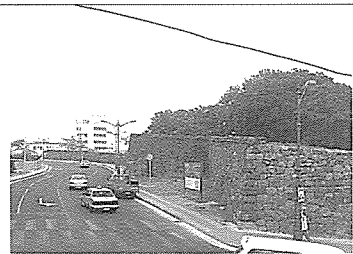
토지가 척박하고 협소한 본섬은 인구의 증가로 자금자족이 곤란하게 되고, 과중한 군역의 의무와 왜적의 침범에 대한 불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였으므로 인구가 격감하였다. 1629년(인조 7)에는 제주도 자체 방어가 어렵게 되자 도민들의 출륙(出陸)을 금지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 말기(1830년)까지 약 2백년 동안 지속되었으므로 육지부와외의 교역은 물론 문화의 교류도 차단되었다. 이는 제주 문화의 특이성(特異性)-고유성(固有性)을 갖게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탐라순력도 중 한라장축(漢拏壯嶽), 1702년」: 당시 제주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변도서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있는 그림



「탐라순력도 중 제주조점(操點), 1702년」: 제주읍성에서의 성정군(城丁軍)의 군사 훈련과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그림



제주성 전경